



남원소방서, 119구급대 감염 예방 소독업체 선정

남원소방서가 119구급대 감염사고 방지와 체계적인 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 소독업체를 선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19감염관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염관리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구급대원과 환자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특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구급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구급차 및 장비에 대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소독을 통해 감염 확산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선정된 전문 소독업체는 구급차 내부와 주요 장비에 대해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감염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구급대원 대상 감염 예방 교육과 점검도 병행해 현장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남원=김기우 기자



순창소방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순창소방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화재 대응능력 향상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1월 충북 음성 화재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 인명피해사례를 계기로, 언어와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119 신고 방법 △소화기 사용법 △화재 시 피난·대피 요령 △불철산불 및 쓰레기 소각 주의사항 등을 중점 안내했으며, 통역 지원과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진안군, 태고정에서 합동 소방훈련 실시

진안군은 27일 국가유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진안군 용담면 태고정에서 진안소방서, 전북등부문화유산보존센터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불철 산발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연막탄 점화를 통한 화재 발생 상황으로 시작됐으며, 각 참여기관과 현장 인력은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별 훈련을 시행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결핵, 예방이 최선’... 전북대병원, 캠페인 진행

지역사회 인식 개선·예방 수칙 홍보로 감염병 대응 강화

전북대학교병원이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인식 개선과 예방 실천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전북대학교병원은 3월 24일 ‘결핵 예방의 날’을 기념해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수칙을 알리기 위한 ‘제16회 결핵 예방의 날’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결핵 예방의 날은 결핵균 발견을 기념하고 결핵 예방과 퇴치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번 캠페인은 병원 감염관리센터와 호흡기전문질환센터 주관으로 어린이병원 앞 이동통로에서 진행됐으며, 환자와 보호자, 내원객, 직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홍보 활동이 펼쳐졌다.

행사에서는 결핵과 잠복결핵의 차이, 다제내성결핵에 대한 정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수칙, 올바른 기침 예절 등이 안내됐다. 특히 ‘O·X 퀴즈’ 이벤트를 통해 의학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참여자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결핵은 감염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거나 흉통,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검진이 필요하다.

이재현 감염관리센터장은 “결핵은 정기 검진과 기침



전북대학교병원은 3월 24일 ‘결핵 예방의 날’을 기념해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수칙을 알리기 위한 ‘제16회 결핵 예방의 날’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예절만으로도 충분히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다”며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전북대병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 관리와 의료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기자

정읍 농촌의 미래, ‘청년 교류 원정대’가 뭉쳤다

청년 귀농귀촌인의 든든한 ‘로컬 네트워크’ 구축

정읍시가 청년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농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7일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서 ‘2026년 귀농·귀촌 청년 교류 원정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농촌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 귀농·귀촌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원정대는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과 감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생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들이 갖춘 스마트팜 전문 지식과 실무 역량이 정읍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체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최종 대상자로 선정했다.

‘청년 교류 원정대’는 앞으로 단순한 정착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주요 활동으로는 어르신 대상 노인 봉사활동을 비롯해, 청년들의 전문성



을 살린 지역 농산물 네이밍·브랜딩 컨설팅 참여 등이 있다. 아울러 스마트팜 선도 농가 방문과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해 고부가가치 첨단 농업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읍=김태환 기자



계화면, 근농인재육성장학금 1군민 1후원계좌 갖기

부안군근농인재육성재단은 지난 25일 김화순 계화면장을 비롯한 계화면사무소 직원들이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1군민 1후원계좌 갖기 캠페인에 참여해 장학사업 홍보에 나섰다

이날 계화면 직원들은 장학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알리며 군민들의 자발적인 후원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같은 날 열린 이장회의에서도 캠페인을 병행 추진하여, 회의에 참석한 이장들 또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후원의 뜻에 공감하며 캠페인에 참여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행안면 지사협, 취약계층 이동·청소년에 꾸러미 전달

부안군 행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은진·민간위원장 김홍우)는 지난 26일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취약계층 이동·청소년 및 한부모·조손가정 자녀 10명에게 희망 선물 꾸러미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이동·청소년들에게 작은 기쁨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이 좋아하는 맞춤형 간식꾸러미와 함께 문화상품권을 마련해 지사협 위원들이 직접 전달했다.

특히 부안군 지사협(위원장 김현구)도 자리를 함께하며, 행안면 지사협 특화사업에 대한 격려와 발전을 응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경찰서·정읍시 치매안심센터, 실무간담회 개최

정읍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지난 26일 지역 내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정읍시 치매안심센터와 실무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 어르신 실종 신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는 어르신들이 경찰서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즉시 지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찾아가는 지문 등록 서비스’를 실시해 협업 시스템을 정기화하고, △실종사건 발생 시 초기 발견의 핵심인 GPS 기반 배회자지기(스마트태그) 보급 협력 △상호 비상연락망 정비(실종사건 발생 시 초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점검) 등을 논의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842-2725
심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후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대전